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

(딤후3:10~13)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 11절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디모데야, 네가 직접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 '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사고들과 불행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구절이 성경에는 참 곳곳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건져주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성경의 내용을 가만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류역사상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한 시가 그 어느 시인의 시도 아니고, 성경 시편 23편이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1절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구절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여호와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자기 자신인데, 양인 다윗 자신이 임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인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골짜기에서 지켜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목자라면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왜 양들을 그리로 끌고 들어갑니까?
끌고 들어간 다음에 지켜주는 것, 기왕에 들어간 다음에는 지켜주심이 고맙지만 정말 훌륭한 목자라면 그리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해가 돼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을 칠 때, 목초지를 향해 가노라 보면 어차피 길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어느 동네 살고 있는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단체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로 보자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못마땅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사도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말씀의 요지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내가 삶을 살 때 목적하는바 그리고 나의 믿음,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박해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같은 것을 잘 갖출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박해 받는 걸 기정사실화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의문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신도 아니

고 우상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천지에 살고 있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과 단체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 모시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주님과 그 아버지를 믿고 있는 가운데,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이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박해가 필연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 간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못마땅해요.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67년에 네로황제가 박해할 때 로마에서 잡혀 죽습니다.
왜 그때는 안 건지십니까?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네로황제에게 잡혀 죽을 때는 바울이 못마땅하셨을까요?
이 건지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모토로 내걸고서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이 리듬을 따라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대신에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이것을 비판적으로 말할 계제가 못돼요.
예배당 안에서 충성 봉사 헌금 많이 하면 형통하는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목사님과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 교인들을 비판할 계제도 못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박해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갖고서야 대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박해를 견뎌내려면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네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과 믿음에서 나오는 목적을 향해 갈 때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못마땅한 주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하는 바람에 루스드라로 피해 옵니다.
루스드라로 피해서 왔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였나 하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로 쳤어요, 너무 심하게 돌로 맞아서 졸도를 하고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다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쭉 둘러있는 가운데 젊은 디모데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건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져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너무 심하게 맞아서 정신을 잃고 졸도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미 건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못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건지시려고 하는 포인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강력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있는 상태의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찰싹 붙어있는 상태의 그런 나를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건지시는 포인트는 우리 마음을 건져내시는 데에 있습니다.
육체와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건져내시는데, 그렇게 돌로 맞아 죽도록 돼야 건져내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지나가가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줍니다.
이때 루스드라 시민들이 그걸 보고는 기절초풍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쓰쓰 신과 허메 신(헤르메스 신으로 말씀을 하는 신)으로 신당에서 제사장이 화환과 소를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건 굉장한 역사 아니겠어요?
형통의 역사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앉은뱅이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해내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옷을 찢고 반대를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 그것 갖고 장사합니다.
나를 신처럼 대우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바울과 바나바같이 신실한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돌로 쳐 죽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박해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박해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사도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한 박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지금 죽을 만큼 맞고 버려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또 마음을 두 번째로 구하십니다.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사도바울이 '받은 계시가 많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체에 고통이 주어지면서 마음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을.
앉은뱅이가 일어난 굉장한 사건이고 온 시민이 다 들썩거리고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옷을 찢어버리고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박해를 가

하심으로써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친 자들이 아직도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에 고통을 가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음을 건져내신 거예요.
육체가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을 어떤 사람들이 내게 주었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악한 상황을 허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두려움을 갖거나 억눌림을 갖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겁니까? 이게 사람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더블로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의 근본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박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박해를 가하게 되는 마귀의 최종목적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연결됨을 삶의 현장 안에서 가능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끊으려 하고 주님은 이으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박해는 네로의 박해나 유대인의 박해 같은 박해가 없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의 근본 의도를 이해하면 박해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돈이 안 벌리므로 내 삶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마음에서 생기는 건데, 그 걱정은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육체를 가지고 만나는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오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듯이 네 마음이 네 육체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박해는 돈이 잘 벌려도 주어지는 겁니다, 박해의 근본 의도를 생각하면.
돈이 잘 벌리면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게 되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빠져나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 요구입니다.
마음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에 찰싹 달라붙어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주어지는 상황들에 마음이 빨려들어 가버리고 세상에 깊이 빨려들어 갑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 긴장과 이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압박감이냐?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이 육체에 접착되고 육체에 끌려가고 육체가 당하는 상황으로 빨려들어 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될 거라는 얘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이 세상으로 끌려들어 갈 위협 속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자면 다 박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세상 쪽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몸에 붙으면 안 되고 대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떠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는 방법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걸려 계시는 거예요.
내 몸 놔두고 예수님의 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니 계속해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 아닌 박해가.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에 꽃이 핀 상태입니다.
건져주셨다, 마음을 건져주신 거예요.
마음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서 저 나쁜 놈들이 내가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다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한다고 장사도 이렇게 안 되는데, 맨날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걸 참고 기다리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들지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도 벌떡 일어나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이 건져진 거예요, 육체와 육체가 만난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면 건져진 대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의 육체와 연합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내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 육체 놔두고 주님의 육체와 마음이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에 꽃이 핍니다.
기쁨의 꽃이 피고, 만족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핍니다.

스테반 보세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것은 마음과 육체가 붙은 상태의 스테반을 건지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스테반의 육체로부터 마음을 건지신 겁니다.
근데 그 스테반의 마음이 어떻게 건져집니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몸에 연합합니다.
주님의 몸이 승천함에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버리니까 스테반의 마음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걸 혼자 보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걸 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마음에 꽃이 핍니다.
이때 자기의 육체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승리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출세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일찍 죽더라도 이 육체가 죽는 죽음에 마음이 빨려들어 가는 대신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님아버지 앞에 마음이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모든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나의 원수들을 위해 중보의 위치에 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정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건지심, 마음과 육체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의 나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몸이 만나는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을 건져내심으로써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나의 몸으로 십자가에 걸어놓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삼아버리면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어떤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그 박해를, 바다 위를 걸으시던 주님처럼 빠지지 않고 너끈히 걸어갈 수 있는 승리와 완벽한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건져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